

꿀벌이 주는 최고의 선물

-지난호에서-

超藥 - 초약 프로폴리스

◆ 세계 의학계가 프로폴리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 유럽은 프로폴리스 선진국

기원전 시대부터 민간 약으로 사용해 왔던 프로폴리스이지만, 근대 과학 앞에서는 거의 잊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그 효과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겨우 3~40년 전이며, 판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프로폴리스를 활용하는 나라는 아주 많으며, 루마니아 등 동유럽 각국과 러시아, 브라질 외에도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 가루치약, 비누 등이 백화점과 약국에 진열되어 있다. 더욱이 쿠바에서는 프로폴리스를 원료로 한 캔디 모양의 의약품이 치료가 어려운 장에 기생충이 생긴 어린이들의 구충용으로 사용되는 예가 있다고 한다. 이밖에 유럽 각국 등에서는 관절염 치료에 프로폴리스를 배합한 고약을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화상 등의 치료에 프로폴리스 연고를 사용해서 완치까지의 시간단축에 성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외국에서 프로폴리스가 약으로 폭넓게 사용되게 된 배경에는 동물실험에 의한 연구성과와 병원 등에서의 임상에 의한 프로폴리스 효과의 입증 덕분이라고 하겠다. 현재는 많은 나라의 의학, 약학 전문가들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연구와 치료에 힘을 쏟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프로폴리스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곳은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각국과 러시아 등의 유럽 각국이라고 한다. 즉, 이들 각국에서는 프로폴리스가 단순한 민간약이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는 신약을 낳게하는 커다란 가능성을 갖는 연구대상이라는 것이다.

2. 일본의 프로폴리스 원년

그러면 일본에 프로폴리스가 알려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 계기는 1985년 10월,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30회 국제양봉회의' 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매일 꿀벌들과 같이 지내오던 양봉업자들 속에서도 프로폴리스의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벌 등지에 붙은 쓸모없는 찌꺼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이 찌꺼기 덩어리가 30회 국제양봉회의에서 소개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순식간에 보물덩어리로 변신해 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양봉 관계자와 건강 관련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현재에 이르는 프로폴리스 '붐(Boom)'의 방아쇠가 됐다고 할 수 있다.

국제양봉회의는 세계의 꿀벌사육업자와 꿀벌연구가가 모여 정보교환 및 연구, 발표를 하기 위한 모임이다. 1897년 제1회 벨기에 대회가 열린 이래 2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나고야회의에는 53개국에서 약 2,200명의 연구자 등이 참가했다. 이 회의는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성과와 의학적인 임상 예의 보고를 통하여, 프로폴리스의 여러 가지 약효를 공식적으로 일본에 처음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선진 각국의 연구자들 가운데 한 일본인 연구자가 처음으로 '일본산 프로폴리스의 화학성분 및 항미생물 활성'이라는 연제로, 에이매현과 아끼다현의 프로폴리스를 재료로 한 연구발표를 한 것도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회의에서 연구 발표의 중심이 된 것은 프로폴리스 선진국인 동유럽 각국의 연구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불가리아의 한 의사는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벌꿀로 어깨, 팔목, 무릎의 관절 장애를 가지는 환자 36명에게 치료를 했는데, 20명이 거의 완치됐으며, 14명이 50% 회복하고, 개선을 보지 못한 사람은 2명이었다."고 보고했다.



3. 암학회 발표로 뜨거운 시선

그 후 프로폴리스에 쏟아지는 시선을 한층 더 뜨겁게 한 것은 1990년 9월에 개최된 제50회 일본 암학회에서 발표된, '프로폴리스로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찾아냈다'는 연구이다. 여태까지 항균·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민간약으로 알려졌던 프로폴리스에서 찾아낸 물질에서 세포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강한 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가 일본 암학회라는 권위 있는 장소에서 발표된 것은 프로폴리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크게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그 후에도 "자궁경부암, 간암 환자들에게 프로폴리스를 투여했더니, 3개월에서 1년 후에는 암세포의 태반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임상 예와, "프로폴리스에 급성·만성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와 진통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것 외에, 1991년 제 51회 일본 암학회에서도,

- 위암에 대한 효과...프로폴리스에서 추출한 물질을 복용한 위암 환자는 '내추럴 킬러' 세포(암을 죽이는 작용을 가지는 임파구)가 증가했다.
- 간암에 대한 효과...프로폴리스를 항암제인 '아드리아 마이신'과 함께 복용한 간암환자는 치료효과가 좋아지는 한편, 항암제의 부작용이 가벼워졌다.
- 폐암에 대한 효과...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방사선 치료에 의한 폐렴유발이 방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임상 예가 보고되는 등, 의학·약학 전문가에 의해서 암을 비롯한 갖가지 병에 대한 프로폴리스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성과가 건강잡지, 일반잡지, 신문 등에 널리 소개된 것을 계기로 '프로폴리스는 천연의 항암제'라는 가능성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민간 약, 건강보조식품으로 또다시 커다란 '붐(Boom)'을 맞이하고, 건강을 원하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으며, 일본 의학·약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 프로폴리스의 효과를 보장하는 10가지 작용

여기에서 프로폴리스가 가지는 작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표된 여러 나라의 연구논문과 증상별 사례 보고 등의 자료를 정리해 보겠다. 프로폴리스에는

사람 몸에 유익하고, 광범위한 작용이 있다고 하며, 예를 들면 프로폴리스에 대한 주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 작용은 이런 작용의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적 효과를 미치게 함으로써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암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질병이 이런 작용의 상승효과에 의하여 쾌유되어 간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단, 아래에 말하는 작용은 어디까지나 경험으로 알려진 것이며, 프로폴리스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작용을 낳는가 하는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해명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은 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이 실제적인 임상 사례를 거듭함으로써 증명된 프로폴리스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1. 항균·살균 작용

상처가 났거나 또는 음식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폴리스의 항균·살균 작용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작용이 미치는 범위는 대단히 넓으며, '박테리아' 살균균에 대한 많은 효과가 인정되었다. 예를 들면 항생 물질로 퇴치하기 어려운 내성을 가진 노란색 포도구균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MRSA 원내감염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체험담이 있고, '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B형, C형 간염의 치유, 개선 체험담도 많이 듣고 있다.

어느 60대 남자는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게 된 후부터는 열이 나거나 식욕감퇴 등 간염 특유의 증상이 없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 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다른 40대 남자는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게 된 후, 흙색이었던 얼굴에 붉은 색이 돌게 되고, 반년 후부터는 간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GOT, GPT 등의 검사 데이터도 낮아지고, 정상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 남성은 의사로부터 '인터페론' 투여에 의한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부작용을 걱정하여 주저하고 있었는데, 프로폴리스를 복용한 후의 회복으로 '인터페론' 투여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그 기쁨을 말했다.

또한 앞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병이라고 무서워하는 '에이즈', '에볼라 출혈열', '뎀사열'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프로폴리스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진통작용

프로폴리스는 다른 말로 '천연 아스피린'이라 불리



고 있다. 사실상 끈질긴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이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게 된 후, 두통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어느 연구자는 이 작용을 두통의 원인이 되는 ‘프로스타그란진’이라는 물질이 신체 내에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이 프로폴리스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두통뿐 아니라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복수술 후에 오는 상처의 통증이 가벼웠다.” “말벌에 찔렸는데, 프로폴리스 액을 발랐더니 아픔이 없어졌다.”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프로폴리스에 있는 듯하다. 어느 한 여성이 유리파편으로 손가락 끝을 베었다. 병원에서 “세 바늘을 꿰멘 후라 마취가 되어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손가락 끝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며 많은 아픔이 올 것이니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여성은 병원에서 돌아와서, 즉시 프로폴리스 액을 발라 놓았다. 그랬더니 밤이 되어도, 다음날이 되어서도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말기 암에 있는 사람이 보통이면 ‘모르핀’을 대량으로 쓰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는 예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불행히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QOL=환자의 생활의 질)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다.

특히 화학적으로 합성된 진통제 등에는 부작용, 또는 습관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점점 효과가 적어져서, 사용량이 많아지고, 부작용도 한층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천연물질인 프로폴리스에는 그런 악순환이 없다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3. 항염증 작용

천연의 항생물질이라고 하는 프로폴리스는 충혈, 부기, 열, 통증 등을 가져오는 염증으로 생기는 병의 개선에 특히 효과가 높은 것 같다. 더욱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체험담은 구내염을 비롯하여, 위염·장염·방광염 등 비뇨기계 염증, 화상, 뼈근한 어깨, 근육통, 노인들의 기관지염과 폐렴, 어린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염 등 대단히 폭넓은 병의 증상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구 소련의 방사선 연구소의 연구자는 “프로폴리스를 배합한 연고를 방사선에 의한 궤양성 염증이나, 화상 등의 환부에 발랐더니, 상처도 남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이 보고에 의하면 치료 등을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사전에 프로폴리스 연고를 발라두면, 피부를 보호하여, 염증 등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참으로 천연의 항생물질이라는 이름 못지 않은 활약상인데, 이러한 프로폴리스의 작용은 염증의 원인이 되는 체내 물질 발생을 억제하는데 직접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는 혈항불량 개선 등과 같은 염증의 원인을 해소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4. 면역 활성화 작용

바이러스, 세균 등의 병원체가 우리들의 몸에 침입해 증식함으로써 일어나는 병을 감염증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같은 병원체에 감염됐을 경우라 해도, 어떤 사람은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발병하지 않거나, 또는 가벼운 증상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그 병원체와 싸우기 위한 저항력 차이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몸이 병원체와 싸우는 ‘시스템’으로는 ‘백혈구’와 ‘마크로퍼지’라 불리는 세포가 병원체를 물리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또한, 백혈구 하나인 임파구가 관여하는 면역반응도 이러한 생체방어 ‘시스템’으로 없어서는 안될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역이든, 인플루엔자든 모두 하나의 병원체가 일으키는 감염증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다음에는 적어도 가볍게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몸에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면역 시스템 작용에 의한 것이다.

우리들의 몸은 자기 몸에 건전한 성분 이외의 것이 침입해 오면 그것을 알아내고 물리치려 한다. 이런 이물 항원이 몸속에 들어오면 임파구는 그 이물에 저항하고, 그것을 물리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스펙셜리스트’인 항체를 만들어 낸다. 일단 몸 속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다음에 그 이물이 침입해 왔을 때는 재빨리 그 항체를 동원해서 이물을 물리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병이 나거나 증상이 악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폴리스는 이러한 면역 반응의 중심이 되는 백혈구, 임파구 등의 작용과 BRM(생물학적 응답조절물질·인체 내에 생기는 암의 항체가 되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몸이 가지는 저항력을 증강하는 작용을



가진다고 한다.

5. 세포활성·재생 작용

크게 벌어진 상처가 아물어 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상처는 처음 안으로 살이 돌아 나와, 차차 아물어 가고, 얼마 후에는 표면에 얇은 피부가 생긴다. 이 과정을 세포 레벨에서 보면, 처음에 돌아 나오는 살은 활발히 증식을 되풀이하는 육아세포라 불리는 것이며, 이 육아세포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본래의 조직세포로 바뀌어지면서, 상처는 흔적도 없이 완치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잘 안되는 경우에는 상처 부분에 육아세포가 그대로 굳어져 남게 되며, 그것이 상처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 개복수술을 받은 뒤어나 큰 부상을 입었을 때, 프로폴리스를 복용했더니 상처가 빨리 아물었다든지, 또는 상처 자리가 남지 않고, 깨끗이 나왔다고 하는 경험담을 많이 듣는데, 이런 현상은 프로폴리스 성분에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약 60조(兆)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뇌세포 이외의 모든 세포가 각각 항상 새로운 세포로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몸 안의 모든 세포는 단 3개월 동안에 세대교체를 해버린다는 것이다. 프로폴리스는 이러한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예를들면,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있었더니, 흰머리에 검은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다는지, 원형탈모증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체험담은 지금까지 많이 듣고 있다. 이런 작용은 발모능력이 없어졌거나,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색소가 없어져서 모근 세포가 프로폴리스의 성분이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한 결과, 다시 본래의 검은 머리카락을 생기게 하는 힘을 찾은 결과라 할 수 있다.

6. 조혈작용

혈액 이상이 원인이 되는 병의 대표적은 철분 부족과 대량의 출혈로 인한 빈혈 이외에 적혈구가 분해되어 버리는 용혈성 빈혈, 조혈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B16 결핍에 의한 악성 빈혈, 조혈 능력 자체의 저하에 의해 생기는 재생 불량성 빈혈에서는 적혈구 뿐 아니라 백혈구, 혈소판의 수도 줄고, 감염증에 걸리기 쉬우며, 출혈이 멎기 어렵게 된다. 또한 백혈구의 감소는 약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항암제의 영향, 방사선 피폭 등에 의해서도 생긴다.

혈액은 인체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몸의 저항력을 담당하는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 혈액의 이상은 몸 전체의 질병에 연결되기도 하며, 그것을 악화시키기도 하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혈액병의 원인으로서는 암, 만성 감염증, 간질환, 내분비질환 외에 위궤양, 치질 등의 출혈이 있는 병인 경우에는 원인질환의 치료와 함께 혈액을 정상 상태로 하게 하는 것이 병 치료에 크게 도움을 준다.

프로폴리스는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용은 정상적인 혈액제조 공장인 골수의 세포에도 미친다. 혈액제조에 필요한 미량의 원소를 공급하며, 적혈구와 백혈구, 임파구 등의 세포를 정상화,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는 혈액 이상의 원인인 병, 또는 그것이 치료에 방해가 되는 병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동계양봉대학 개최

동계 양봉대학 강좌가 2002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교육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장소는 전년도와 동일한 안성시 농협교육원축산교육센터에서 개최되오니 희망자는 다음과 같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자

2002년 12월 4일(수요일)

09:00~12월 6일(금요일) 2박 3일

나. 장 소

경기도 안성시 농협교육원 축산교육센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신두리)

다. 교육비 : 7만원(숙식포함)

비회원 : 9만원

※자세한문의 : 031-291-6622(협회 사무국)

※등록 : 본협사무국